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7.26.(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7. 26.(화)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전준철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44-200-5253)

해수부, 해수욕장 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해 특별점검 추진 - 장관과 차관이 직접 나서 대형해수욕장 방역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국민대표 피서지인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관리 현황을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0개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체계, 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비롯한 피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금부터 8월 7일(일)까지를 해수욕장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장관과 차관을 필두로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직접 강원 경포해수욕장,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제주 협재해수욕장 등 대형해수욕장 16곳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방역 수칙 홍보, 소독 및 환기 등 해수욕장별 방역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수칙 등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 고

해수욕장 방역점검 사진(차관, 해운대 해수욕장, 7.19(화))

